

창조적 문화도시 서울을 바라며

김현호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

해방 후 한국문화예술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서울 명동의 옛 ‘국립극장’이 내년부터 복원된다고 한다. 1934년에 건립되어 창극과 무용, 오페라의 산실역할을 했던 곳이다. 1975년 정부가 민간기업에 매각한 이래 실로 30여 년 만의 일이다. 이 문화공간이 시민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는 데는 문화예술인들뿐 아니라 서울 시민의 줄기찬 노력도 보탬이 되었다. 문화적인 도시 만들기의 작은 성과라 하겠다.

문화적인 도시 만들기 현상은 선진국일수록 더하다. 궁핍한 시대를 지나 웬만큼 살 만하게 된 도시나 나라들이 문화로 관심을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이런 의문은 문화가 현대도시에서 지니는 의미를 짚어봄으로부터 해답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겠다. 교통문화가 어떻고 어떻다느니, 음식문화가 어떻다느니, 주말에는 문화적 볼거리가 풍부하다느니, 하는 식으로 문화의 의미가 다양하게도 쓰이고 있

다. ‘삶의 양식’(way of life)으로 문화를 정의하건, 이보다 좁은 의미의 연극이나 영화, 문학 등 ‘예술문화’로 문화를 정의하건 간에 문화의 중요성은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문화의 중요성이 증가한 요인은 문화의 유용성 증가에서 찾을 수 있겠다.

현대도시에서의 문화적 유용성은 ‘창조도시’(creative city)로 나타나고 있다. 창조도시가 중시되는 배경에는 무엇보다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과 관련이 많다. 지식기반경제에서는 창의적 활동에 종사하는 지식노동자의 역할이 중시되고, 이들의 창의성 함양에 문화적 요소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문화적 요소의 소비를 통해 휴식을 얻을 수 있고, 영감과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식기반경제에서는 문화적 요소가 주요 자산이 되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더해 현대인의 라이프 스타일도 문화적 소비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 소득수준 및 여가시간의 증대, 정보기술과 문화의 접목에 따른 문화의 공급과 접근성 증대 등이 이러한 변화를 견인하는 요인들이라 하겠다. 그런데 문화적 요소의 소비는 단순한 소비로 그치지 않고 생산을 위한 투자로 다시 전환된다. 문화적 요소가 풍부한 도시나 지역들이 지식기반산업 성장의 주요한 토양이 되고 있음도 이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래저래 문화에 기반한 창조성이 중시되는 ‘문화경제’(cultural economy) 시대로 전환되고 있고, 그것은 창조도시 논의로 구체화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이 책의 출간은 여간 반갑지 않다. 이 책은 삶이 곧 문화라는 관점에서 ‘서울 문화도시 만들기’를 적고 있는데 창조도시 논의와 맥을 같이한다. 더구나 이 책은 문화도시 서울을 구성하기 위한 원론적 논의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 주요사업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1960년대부터 본격화된 압축적 경제개발의 과정을 “파괴적 개발의 시대”로 규정하고 그 과정이 문화적 특성을 소멸시켜왔다는 반성에서 이 책은 출발하고 있다.

이 책은 특히 공간을 보는 관점 자체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함을 강

조하고 있다. 그것은 경제적인 공간관에서 문화적인 공간관으로, 인공적인 공간관에서 생태적인 공간관으로, 권력자의 공간관에서 시민의 공간관으로 인식이 전환될 때 비로소 ‘문화도시 서울’이 자라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사진자료와 도면자료를 함께 실음으로써 어찌면 지루하고 단조로울 수 있는 책읽기에 쓸쓸한 재미를 보태고 있다. 현재 강북삼성병원으로 쓰이고 있는 경교장의 당시 사진이나, 복원논의가 한창 진행중인 청계천의 1954년 옛 사진, 청정 해수욕장보다도 더 고운 모래와 실긋한 강안선을 따라 형성된 모래사장이 있는 1955년 당시의 한강 뱃놀이 모습 등을 보노라면, 문명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소중한 가치들을 소진시켜왔는가를 새삼 느끼게 된다. 서울 구석구석에서 찾은 일상적 삶의 편린이 담긴 공간에 대한 사진들에 위성사진, 도시계획도 등을 가미함으로써 보다 입체적인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또 하나 이 책을 읽는 재미로 해외의 문화도시 전략을 상세히 소개한 부록도 빠뜨릴 수 없다.

이 책은 네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I장은 문화는 삶의 과정이자 결과라는 인식에서, 삶이 이루어지는 공간 자체가 문화도시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문화도시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삶 속에서 문화적 풍요를 느끼고 살아갈 수 있는 도시를 만들자는 것이 문화도시의 필요성이라 한다.

제II장은 서울의 공간구조형성이 반문화적으로 형성되어온 과정을 분석하고 있다. 근대 30여 년을 2,000년 이상 퇴적시켜온 시간의 켜를 파괴시켜온 과정으로 인식하고 이를 문화공간정책과 일상공간정책으로 나누어 조명하고 있다. 문화공간정책의 경우 문화적 인프라의 부족, 역사적 자산을 이용한 관광진흥측면 위주의 정책, 문화적 자산의 파괴 등이 두드러짐을 지적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한 사회의 문화적 자산을 살찌우는 데 중요한 주거·상업·생산의 일상공간의 경우도 문화공간정책과 다를 바 없이 역사성과 장소성이 결여되고 있다고 한다.

제III장은 원칙, 주체, 제도개선의 측면에서 문화공간의 생산과 전략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보행자중심, 일상중심 등의 원칙을 제시하면서 시민, 전문가, 정부의 공동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공간정책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문화적 삶의 고양인데, 이를 위해 시민들이 삶이 자리에서 다양한 문화예술을 쉽게 즐길 수 있는 공간정책과 문화정책의 융합을 위한 법적·행정적 제도 개선을 탐색하고 있다.

제Ⅳ장은 ‘문화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교두보로 문화적 요소와 서울의 역사성이 가장 풍부한 도심을 대상으로, 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밀도 있게 조명하고 있다. 문화공간과 일상공간을 복원·창출하기 위한 과제로 나누어 각각의 구체적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은 서울이 상실한 고유하고 독특한 문화적 매력과 정체성을 발굴, 복원, 현대적으로 재창조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문화는 화석화된 상태로서는 별반 의미가 없다. 살아 있는 문화는 현대적 의미로 다시 재해석되어 활용되어야만 한다. 이것이 화석화된 유물과 살아 숨쉬는 문화의 차이이다. 문화적 도시 만들기에서 특히 유의해야 할 점은 박제화와 관광상품화 위주의 사고라는 점임을 지적하면서 이 책은 이 점도 놓치지 않고 있다. 이 점은 역사성의 복원에서도 마찬가지로 역사성의 회복은 역사를 살아 숨쉬게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그 요체는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한다.

하나의 도시를 문화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도시 자체를 하나의 문화적 유구(遺構)로 인식하여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역사적 원형을 살리되, 이 원형이 현재와 잘 어울리고, 시민과 접촉이 용이하게 하는 이른바 ‘유기적 복원’을 강조함도 이 때문이다.

그렇다고 이 책을 읽기에 유의해야 할 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어찌 보면 문화공간의 창출에 집착한 나머지 서울의 문화공간이 복원·창출되면 저절로 문화도시가 형성되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지도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이 책은 이런 공간 결정론의 위험에 빠지지도 않는다.

이런 의구심은 이 책이 선택한 문화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수단적

효율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겠다. 문화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의 방법 중에서 긴급하고도 효율적인 수단으로 서울로 하여금 역사적 정체성을 갖게 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의 시·공간적 퇴적이 있는 연속성의 복원, 다시 말하면 삶의 쉼이 쌓여 있는 역사성의 복원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이다. 서울처럼 철저하게 문화적 원형이 파괴된 처지에서는 역사적인 원형과 문화적인 ‘공간’이 복원될 때 ‘삶’도 더불어 문화적일 수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래저래 도시에 몸담고 있는 현대인 대부분은 정작 자기 도시에 대한 애착이 별로 없는 유목민에 불과하다. 서울도 이런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이 책의 출간이 계기가 되어 문화가 풍성해지는 서울의 창조도시 만들기 논의가 활성화되었음 하는 바람이다.

김현호 hhkim@sdi.re.kr